

남성 의복색의 명도 및 채도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 연구

이 명 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Visual Evaluation and Preference in Men's Clothing Color according to Variation in Value and Chroma

Myoung-Hee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투고일: 2010. 9. 14, 심사(수정)일: 2011. 2. 1, 게재확정일: 2011. 2. 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isual evaluation of image according to the style, hue, value, and chroma of the male clothing and the preference of image. A quasi-experimental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he first factorial design was the $2 \times 3 \times 2 \times 2$ (style of upper clothes \times hue \times chroma \times color of trousers), and the second factorial design was the $2 \times 3 \times 2$ (style of upper clothes \times value \times color of trousers). The styles of upper clothes were a soutien collar casual jacket and a polo shirt. The subjects were 509 female college students living in Seoul. Factor analysis showed five image categories of men's clothing: initiative, dignity, politeness, activity, and mildness. Yellow was evaluated as having the highest initiative and activity. Blue was shown to have lower mildness than red and yellow. The high saturated chroma was perceived to be higher initiative and activity than low chroma. The shirts were evaluated higher in activity and mildness than the casual jackets were. The beige pants were perceived to be higher in dignity and mildness than the dark blue pants. The high chroma jackets were perceived to be higher in both initiative and activity than the low chroma jackets. The navy blue pants with the upper clothes in low chroma blue were perceived to be higher in politeness than with the upper clothes in low chroma red or yellow. The low value clothes were perceived to be higher in both initiative and dignity.

Key words: casual jacket(캐주얼 재킷), chroma(채도), evaluation of image(이미지 평가), hue(색상), shirt(셔츠), value(명도)

I. 서론

의복이미지는 의복이 전달해 주는 전체적인 느낌으로, 의복의 선, 형태, 소재, 색채 등의 디자인 요소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의복 디자인 요소 중에서 특히 색채는 표현적인 특성이 강하므로 착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인상형성에는 의복의 색채가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게 되어 색의 세 가지 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의 변화에 따라 착용자의 특정한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남성 의복색의 이미지 평가는 대부분 정장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남색, 베이지색, 검정색, 회색 등의 색에 따라 의복 착용자의 인상이 달리 나타났다.¹⁾²⁾ 선행연구에서 남색 의복은 능력있고³⁾ 신뢰감과 예의있는 인상을 주며,⁴⁾ 파란색 착용자는 차갑고 딱딱한 인상,⁵⁾ 베이지색 양복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⁶⁾

색채 이미지는 색상 이외에 밝고 어두운 명도, 선명하고 탁한 채도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명한 톤은 동적인 이미지 쪽에 가깝고, 어두운 톤은 딱딱한 이미지에 가까운 편이다.⁷⁾ 이것은 명도나 채도가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색상, 명도, 채도를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캐주얼복의 일상화 등으로 인하여 남성이 착용하는 의복의 색이 다양해지고 유채색을 폭 넓게 수용하게 되었으므로 남성복의 색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복을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구분하여 색채 효과를 검토하며, 무채색의 명도와 유채색의 채도를 변화시켜 그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의복스타일은 무채색과 유채색을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캐주얼 복장인 점퍼와 셔츠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의 의복스타일과 색상, 명도, 채도 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의 효과를 조사하고, 남성복의 이미지 특성이 선호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관찰자 입장에서 남성 의복색의 이미지를 이해하

고, 남성의 이미지에 대한 관리와 연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의복색의 평가

색채 이미지는 내향성-외향성, 남성성-여성성, 젊음-성숙한 등의 착용자 특성과 관련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⁸⁾ 특히 남자 의복에서 색은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일요소로 작용한다.⁹⁾ Molloy¹⁰⁾는 남성복에서 수트의 색이 어두울수록 권위적인 느낌을 준다고 하였으며 검은색은 다른 어두운 색보다 더 권위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진남색과 회색의 수트가 가장 신뢰감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검정색은 밝은 색보다 더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인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¹¹⁾ Radeloff¹²⁾는 중명도와 저채도의 의류 소재가 고명도, 고채도보다 더 선호된다고 하였으며, Francis와 Evans¹³⁾는 선명한 고채도의 색보다 저채도의 의복이 착용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며, 짙은 색 의복이 관리직 지원자의 능력 평가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향미, 김재숙¹⁴⁾은 남성 의복의 격식차림을 의복색과 관련지어 연구하였는데 착용자의 인상 차원을 평가, 사고, 외모·매력, 역동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검색 의복은 적벽돌색보다 평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 예의있고 신뢰감이 드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적벽돌색 의복은 검색 의복보다 더 사교적이며 편안하게 지각되었다. 임지영, 김경자¹⁵⁾의 연구에서는 선명하고 밝은 톤의 셔츠는 활동적이고, 탁하고 어두운 톤은 비활동적으로 평가되었다. 색상과 셔츠 톤의 온유성 차원의 비교에서는 지배적인 단서가 색상으로 나타났으며, 라이트 톤의 셔츠는 온유한 이미지를 주는데 효과적이었다. 임지영¹⁶⁾의 연구에서 검색 양복에 유사배색 넥타이는 무늬에 상관없이 능력있는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베이지색 양복에 유사배색의 넥타이를 하였을 때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었다. 이은미, 강혜원¹⁷⁾은 남성 정장 착용자의 지각 연구에서

착용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베이지색 착용자가 검색 착용자보다 더 보기 좋고 세련되고 능력 있으며, 따뜻하고 부드럽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최유진¹⁸⁾의 연구에서는 검정색 와이셔츠가 흰색보다 능력과 남성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파란색 셔츠는 남성적인 색으로 지각되었다. 남성의 의복색은 의복스타일과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이은미, 강혜원¹⁹⁾의 연구에서 검색 정장의 경우는 싱글보다 더블이, 베이지색 정장은 싱글이 더블보다 더 부드럽고 덜 권위적으로 지각되었다. 남미우, 강혜원²⁰⁾은 남성복을 정장과 캐주얼 점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정장은 색에 따른 차이가 적으며 모두 비활동적으로 지각되었으나 캐주얼 의복의 경우 기본색인 베이지색이 유행색인 보라색보다 더 활동적으로 지각되었다. 특히 중년층의 경우 유행색의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기본색의 평가는 의복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정장을 캐주얼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남성 의복색 이미지는 정장 위주의 연구가 많으며, 흰색, 검정, 검색, 파랑, 베이지색 등의 의복색이 이미지 평가에 의미있는 단서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의복색의 이미지는 의복스타일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의복스타일의 평가

사회적 지각의 연구에서 타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의복과 착용자의 영향, 상황, 지각자의 영향이 있는데 의복의 영향은 의복유형이나 의복스타일이 연구되어왔다. Bell²¹⁾은 4가지 남성복 스타일(대담한, 보수적, 포멀한, 캐주얼 스타일)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포멀한 스타일은 가장 매력적으로, 보수적 스타일은 매력적이며 지적으로, 대담한 스타일은 매력성과 지적인 면은 낮으나 사교적으로 평가되었고, 캐주얼 스타일은 일반적인 차림으로 평가되었다. 이선경, 고애란²²⁾의 연구에서는 회사원과 고위직 스타일의 의복은 외모·능력 요인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연예인 스타일의 의복은 개성있고, 노동자 스타일의 의복은 소박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희선, 고애란²³⁾은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복스타일을 연구하였는데, 학업우수

성의 평가에서 남학생의 경우 평범한 의복스타일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무난하고 평범한 스타일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남미우, 강혜원²⁴⁾의 남성복 연구에서 정장과 캐주얼 점퍼의 의복유형은 활동성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정장은 상황과 관계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비활동적인 인상을 주었으며, 캐주얼복은 상황에 관계없이 활동적이었으나 면접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이인자²⁵⁾의 연구에서는 정장, 캐주얼 재킷, 남방셔츠 등을 착용한 남성의 인상형성을 연구한 결과 의복스타일은 매력성, 성공성의 평가와 직업 추론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무직과 학생의 인상평가에는 인물보다 의복의 효과가 컸다. 임남영, 강승희²⁶⁾는 남성 캐주얼 차림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재킷/면바지는 가장 품위있게 평가되었고 남방셔츠/청바지 차림은 품위가 낮았으나 활동성과 사교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방셔츠/면바지 차림은 개성, 사교성,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류지원, 김재숙²⁷⁾의 연구에서 남성 의복의 격식차림 수준은 모든 인상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매력성의 경우 의복스타일은 지각자의 성별과 상호작용이 있어 남자가 여자보다 남성의 편안한 차림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남성복 스타일은 정장과 캐주얼복으로 구분되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의복스타일을 달리 표현함으로써 착용자의 인상이 좌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의 방법은 준실험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두 가지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A형)는 2×3×2×2(상의스타일×색상×채도×바지 색)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고, 두 번째(B형)는 2×3×2(상의스타일×명도×바지 색)의 요인설계를 사용하였다. 상의의 의복스타일은 수티엥(soutien) 칼라의 점퍼와 폴로셔츠였다. 상의의 색상, 채도, 명도를 변화시켰는데, 색상은 3가

지 색상으로 빨강, 파랑, 노랑을 사용하였고, 채도는 고채도와 저채도로, 명도는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로 구분하였다. 실험설계의 한계로 인하여 색상은 삼원색의 기본색을 사용하였으며, 의복스타일은 2가지를 사용하였는데, 수띠엥 칼라의 점퍼와 폴로셔츠는 남성들이 비교적 다양한 색으로 착용 가능한 스타일이므로 색상 비교를 위하여 선택하였다. 또한 B형의 요인설계에서는 자극물의 수를 제한하기 위하여 색상을 고려하지 않고 무채색의 명도를 변화시켜 밝은 회색, 중간 회색, 어두운 회색의 3가지를 사용하였다. 하의는 베이지색과 감색의 면바지를 사용하였다. 자극물은 모델이 실험의복을 착용한 모습의 사진을 제작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복색을 변화시켰다. 배경색은 연한 하늘색으로 하였고, 얼굴과 신발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얼굴과 신발을 제외하였다. 자극물 사진의 크기는 7.5× 17.5cm이었다. 총 36개의 자극물이 사용되었으며, A형이 24개, B형이 12개였다.

측정도구는 남성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은 선행연구(28)29)30)에서 사용한 형용사 용어들을 참고하여 수집하였으며, 7점 의미비분척도 21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 선호도를 측정하는 문항

을 한 개 더 포함시켜 총 22개의 문항을 조사하였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조사대상자는 서울 지역의 여대생 509명으로서 한 명의 피험자가 2개의 자극물에 반응하게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요인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계수 분석, t -test, 삼원변량분석, 사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의복이미지 평가의 요인분석

의복이미지 평가 항목을 분류하기 위하여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21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5개 요인을 택하였다. 각 요인에서 부하량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항을 요인별로 선택하였다. 이때 요인의 내용과 문항이 일치하지 않는 2개 문항을 제외하고 19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요인이 선택되었으

<표 1> 남성복 의복이미지에 대한 요인분석

요인 1 (적극성)	요인 부하량	요인 2 (품위)	요인 부하량	요인 3 (예의성)	요인 부하량	요인 4 (활동성)	요인 부하량	요인 5 (은유성)	요인 부하량
대담한-무난한	.85	품위 있는-		단정한-		캐주얼한-		따뜻한-차가운	.84
독특한-평범한	.84	품위 없는	.80	단정하지 않은	.83	포말한	.80	부드러운-	
눈에 띄는-		지적인-		성실한-		활동적-		딱딱한	.71
눈에 띄지않는	.82	지적이지 않은	.70	성실하지 않은	.83	비활동적	.68	자연스러운-	
개성적인-평범한	.76	책임감 있는-		깔끔한-				부자연스러운	.54
적극적-소극적	.75	책임감 없는	.60	깔끔하지 못한	.65				
자신감 있는-		세련된-촌스러운	.59	예의있는-예의없는	.55				
자신감 없는	.72								
변량(%)	22.05		13.59		12.73		9.56		8.18
누적변량 (%)	22.05		35.64		48.37		57.93		66.11
고유치	4.19		2.58		2.42		1.82		1.56

며,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은 <표 1>과 같다.

요인 1은 대담한-무난한, 적극적-소극적 등이 포함되어 적극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품위 있는-품위 없는,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품위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예의있는-예의없는 등이 포함되어 예의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캐주얼한-포말한, 활동적-비활동적 등이 포함되어 활동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5는 따뜻한-차가운, 부드러운-딱딱한 등이 포함되어 온유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54 이상이었고 요인 5까지의 누적변량은 66.11%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를 요인의 순서대로 보면 .89, .74, .77, .58, .64였다. 요인분석 결과 결정된 5개의 요인은 각 요인의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상의 스타일, 색상, 채도와 바지 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

실험설계 A에서 상의 스타일, 색상, 채도와 바지

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3>은 집단별 평균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t*-검증,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적극성 평가는 <표 2>에서 상의 스타일과 채도, 상의 색상과 채도, 상의 색상과 바지 색에 따른 2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상의 스타일은 적극성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상의 스타일은 채도와 상호작용하여 적극성에 영향을 주었다. <그림 1>을 볼 때 고채도의 경우 점퍼는 셔츠보다 적극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고채도 점퍼가 적극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고채도 점퍼는 저채도 점퍼보다 적극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셔츠보다 점퍼는 고채도의 의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므로 고채도 점퍼를 착용한 남성의 적극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에서 전반적으로 적극성은 색상, 채도에 의하여 각각 영향을 받아, 노랑과 고채도는 적극성이 높았는데, <그림 2>를 볼 때 빨강 및 파랑보다 노랑은 채도에 의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고채도의 노랑이 적극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어, 남성이

<표 2> 상의 스타일, 색상, 채도와 바지 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사원변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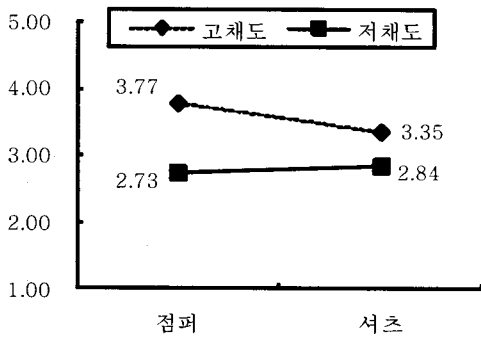
변량원	df	적극성 F	품위 F	예의성 F	활동성 F	온유성 F
상의 스타일(A)	1	2.84	.07	2.16	42.51**	3.91*
색상(B)	2	13.47*	.27	1.89	5.05**	13.88**
채도(C)	1	69.59**	.55	.09	23.05**	.50
바지 색(D)	1	.28	37.06**	.32	1.01	37.71**
A×B	2	1.10	7.81**	2.02	2.81	5.97**
A×C	1	8.49**	1.23	.45	4.20*	.39
A×D	1	1.96	.01	2.65	.11	.00
B×C	2	3.79*	3.01	1.58	.98	.50
B×D	2	7.04**	1.98	2.43	2.84	.22
C×D	1	.35	.79	3.12	.00	.01
A×B×C	2	2.04	1.37	.44	2.30	1.07
A×B×D	2	2.04	.28	.63	5.33**	1.80
A×C×D	1	.01	.60	4.94*	.00	.74
B×C×D	2	.25	1.21	6.55**	.46	.24
A×B×C×D	2	.47	2.67	2.54	.83	.31
집단 내 오차	654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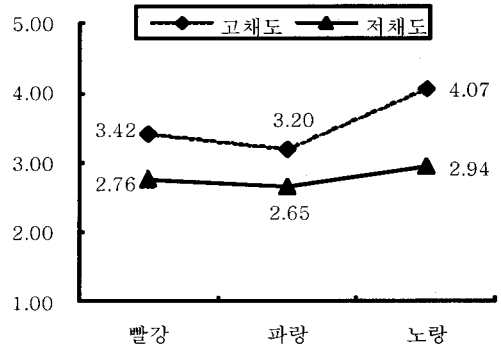
〈표 3〉 상의 스타일, 색상, 채도와 바지 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평균치

변인	속성	N	적극성	품위	예의성	활동성	은유성
상의 스타일	접퍼	340	3.25	3.44	4.73	4.37	4.35
	셔츠	338	3.09	3.47	4.85	4.97	4.50
	t	678	1.56	-.30	-1.51	-6.33**	-1.93
색상	빨강	225	3.09b	3.45	4.85	4.52b	4.53a
	파랑	228	2.93b	3.49	4.84	4.61b	4.15b
	노랑	225	3.50a	3.43	4.69	4.87a	4.60a
채도	고채도	339	3.56	3.48	4.80	4.88	4.40
	저채도	339	2.78	3.43	4.78	4.45	4.46
	t	678	7.99**	.70	.25	4.55**	.74
바지 색	베이지색	336	2.79	3.67	4.77	4.71	4.64
	남색	342	2.78	3.24	4.81	4.62	4.22
	t	678	-.44	5.99**	-.53	.97	5.54**

** $p < .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그림 1〉 적극성 평가에 대한 상의 스타일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2〉 적극성 평가에 대한 상의 색상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고채도의 노랑색 상의를 입을 때 적극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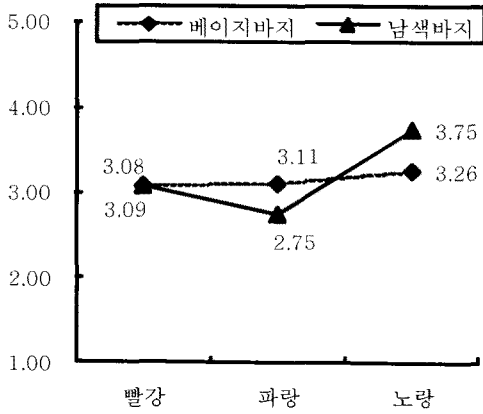
바지색은 적극성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바지색과 상의 색상은 상호작용하여 적극성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 〈그림 3〉에서 베이지색 바지는 상의 색상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나 남색 바지는 상의 색상과의 배색에 따라 적극성의 평가가 달리 나타났다. 즉 남색 바지와 파란색 상의를 입는 것은 적극성이 낮았고, 남색 바지와 노란색 상의를 입는 것은 적극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푸른색 계통의 동일색상 배색은 적극성이 낮게 지각됨을 의미한다.

품위 평가는 상의 스타일과 색상에 따른 2개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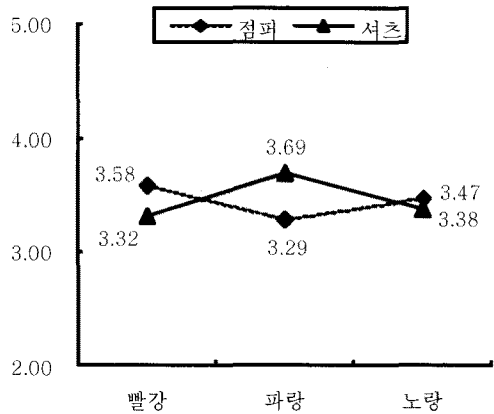
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4〉와 같다. 품위는 상의 스타일과 색상에 의하여 각각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그림 4〉에서 볼 때 셔츠는 빨강이 파랑보다 품위가 낮았으며 접퍼는 빨강이 파랑보다 품위가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노랑은 품위 평가에서 셔츠와 접퍼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품위 평가는 채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채도는 다른 의복 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바지 색에 따라 품위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베이지색 바지는 남색 바지보다 품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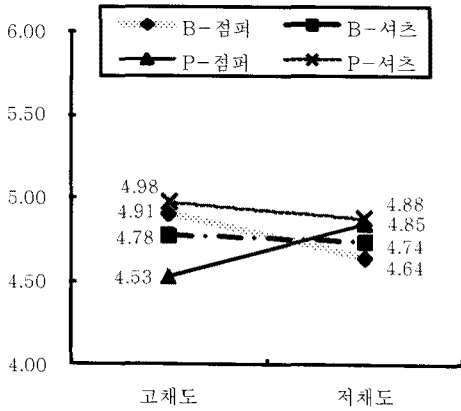
예의성 평가는 상의 스타일, 채도, 바지 색에 따른 3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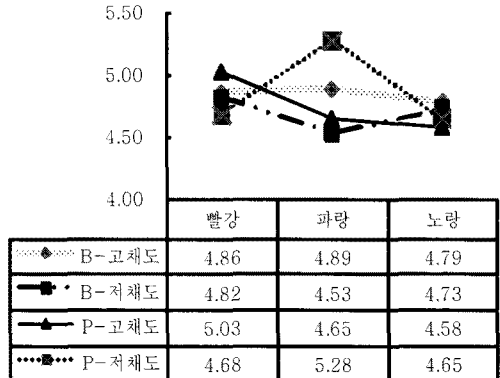
〈그림 3〉 적극성 평가에 대한 상의 색상과 바지 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그림 4〉 품위 평가에 대한 상의 스타일과 색상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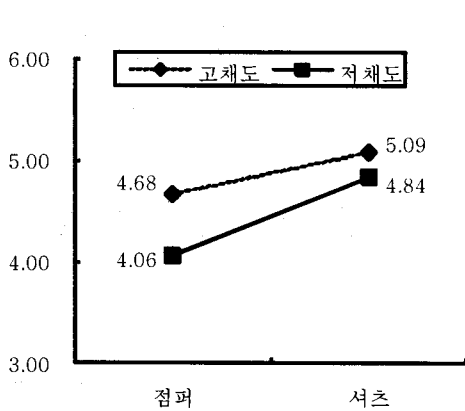
B: 베이지색 바지, P: 남색 바지
 〈그림 5〉 예의성 평가에 대한 상의 스타일과 채도, 바지 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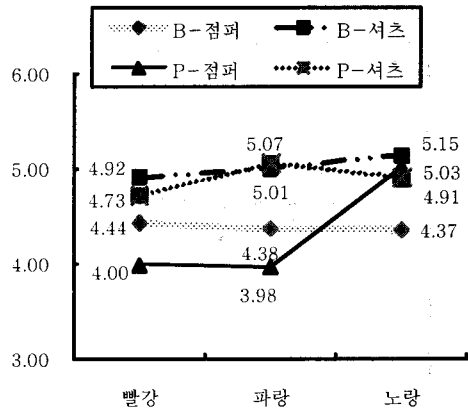
B: 베이지색 바지, P: 남색 바지
 〈그림 6〉 예의성 평가에 대한 상의의 색상과 채도, 바지 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는 〈그림 5〉와 같다. 예의성은 상의 스타일, 채도, 바지 색에 의하여 각각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남색 바지에 저채도 점퍼를 착용한 경우는 고채도 점퍼를 착용한 경우보다 예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베이지색 바지에는 저채도 점퍼를 착용한 경우가 고채도 점퍼를 착용한 경우보다 예의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셔츠의 경우는 배색에 다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예의성은 상의의 색상, 채도, 바지 색에 따른 3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6〉과 같다. 예의성은 상의 색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남색 바지에 저채도 파란색 상의를 착용한 경우는 빨강이나 노랑 상의를 착용한 경우보다 더 예의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것은 남색 바지에 저채도의 파란색 상의는 남색의 유사배색이므로 예의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남



〈그림 7〉 활동성 평가에 대한 상의 스타일과 채도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B: 베이지색 바지, P: 남색 바지
 〈그림 8〉 활동성 평가에 대한 상의 스타일과 색상, 바지 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색 유사배색 복장이 대비배색보다 더 예의성이 높게 지각됨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검색이 적벽돌색보다 예의있게 보였던 선행연구³¹⁾ 결과와 일치하였다.

활동성 평가는 상의 스타일과 채도의 2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7〉과 같다. 전반적으로 활동성은 채도의 영향을 받아 고채도가 저채도보다 활동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점퍼는 채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채도 점퍼가 저채도 점퍼보다 활동성이 더 높았다. 즉 셔츠는 채도에 따른 활동성 평가의 차이가 적고 점퍼는 채도에 따른 활동성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셔츠는 점퍼보다 활동성이 높았는데 특히 고채도 셔츠가 활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셔츠가 점퍼보다 활동성이 높았는데 이것은 폴로셔츠가 점퍼보다 더 광범위하고 가볍게 착용되는 스타일이므로 셔츠가 점퍼보다 활동성이 높게 지각된 것으로 해석되며, 의복스타일이 활동성 평가에 영향을 주었던 선행연구³²⁾³³⁾와 유사한 결과였다. 또한 고채도가 저채도보다 활동성이 높았던 점은 선명한 톤이 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이론³⁴⁾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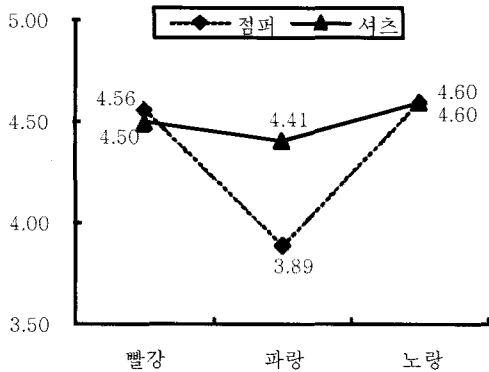
활동성 평가는 상의 스타일과 색상, 바지 색의 3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8〉과 같다. 활동성은 바지 색의 변인만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남색 바지와 점퍼를 착용하는 경우는 남색 바지에 노란색 점퍼를 착용한 모습이 빨강이나 파랑 점퍼를 착용한 모습보다 활동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두운 색 바지에 밝은 색 점퍼를 착용하는 것이 활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효과에서 활동성은 상의 색상에 의한 영향을 받아 노란색 상의가 활동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온유성 평가는 상의 스타일과 색상의 2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9〉와 같다. 〈표 3〉에서 전반적으로 상의 스타일에 의해 온유성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파랑은 특히 의복스타일에 따른 온유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파란 점퍼가 파란 셔츠를 착용한 경우보다 온유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빨강과 노란색 상의는 의복스타일에 따른 온유성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또한 점퍼는 색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셔츠의 경우는 색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즉 남성복의 이미지 평가에서 점퍼는 셔츠보다 색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에게 있어 점퍼는 셔츠만큼 다양한 색을 착용하지 않으므로 시각적 평가에서 색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온유성에 대한 주효과에서 상의 색상에서 온유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파랑이 빨강 및 노랑보다 온유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파랑이 정적이며, 딱딱하고 차가운 색이라는 인식이 있으므로(35) 온유성이 낮게 보인 것으로 해석되며, 선행연구(36) 결과를 지지한다. 상의 채도에 따라 온유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바지 색에 따라 온유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베이지색 바지는 남색 바지보다 온유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여 남성들이 베이지색과 같은 고명도의 밝은 톤의 색을 캐주얼 바지로 착용할 때 저명도의 어두운 색을 착용하는 것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37)에서 베이지색 양복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냈다고 한 내용과 일치하였다.



〈그림 9〉 온유성 평가에 대한 상의 스타일과 색상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3. 상의 스타일, 명도와 바지 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

실험설계 B에서 상의 스타일, 명도와 바지 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5〉는 집단별 평균의 차이를 *t*-검증,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4〉를 보면 적극성, 품위, 활동성, 온유성은 의복 변인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없었으나 예의성은 상의 스타일과 명도, 바지 색의 3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0〉과 같다. 상의의 명도와 바지 색은 각각 예의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베이지색 바지에 고명도나 저명도의 점퍼를 착용한 경우는 중명도의 점퍼보다 예의성이 높았으며, 남색 바지에 셔츠를 착용한 경우는 상의의 명도에 상관없이 예의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남색 바지에 셔츠 차림이 작업복과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므로 예의성이 낮게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5〉의 주효과에서 예의성 평가는 상의 스타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점퍼가 셔츠보다 예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적극성, 품위, 활동성 평가는 상의의 명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저명도는 고명도보다 적극성, 활동성, 품위가 높았으며, 고명도는 품위가 매우 낮았다. 고명도의 의복이 저명도보다 활동성이 낮았던 것은 밝은 색 의복은 오염이 쉽게 드러나므로 활동의 제한을 느끼기 때문에

〈표 4〉 상의 스타일, 명도와 바지 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사원변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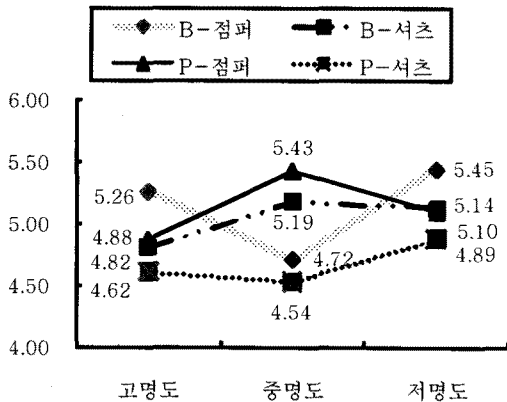
변량원	df	적극성 F	품위 F	예의성 F	활동성 F	온유성 F
상의 스타일(A)	1	.02	.14	5.37*	3.71*	0.14
명도(B)	2	5.75**	5.68**	1.61	3.10*	1.34
바지 색(C)	1	8.23**	22.69**	2.53	.01	33.80**
A×B	2	.10	.32	.12	.32	.51
A×C	1	.27	.91	2.34	1.48	.01
B×C	2	.23	.36	.85	.11	.66
A×B×C	2	.02	1.17	4.54*	.60	2.63
집단 내 오차	328					

p*<.05, *p*<.01

〈표 5〉 상의 스타일, 명도와 바지 색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평균치

변인	속성	N	적극성	품위	예의성	활동성	은유성
상의 스타일	점퍼	171	2.32	3.46	5.14	3.90	4.13
	셔츠	169	2.30	3.42	4.87	4.17	4.19
	t	340	.12	.32	2.25*	-1.84	-.41
명도	고명도	113	2.09b	3.27c	4.90	3.84b	4.15
	중명도	113	2.31ab	3.32b	4.97	3.99ab	4.05
	저명도	114	2.53a	3.72a	5.14	4.26a	4.28
바지 색	베이지색	169	2.46	3.73	5.10	4.04	4.51
	남색	171	2.16	3.15	4.91	4.03	3.82
	t	340	2.86**	4.70**	1.55	.08	5.81**

* $p < .05$, ** $p < .01$, a, b, 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B: 베이지색 바지, P: 남색 바지
 〈그림 10〉 예의성 평가에 대한 상의 스타일과 명도, 바지 색에 따른 상호작용형태

활동성이 낮아진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것은 명도가 낮은 색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느낌을 준다³⁸⁾는 일반적인 색채 느낌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저명도의 의복이 고명도보다 품위가 높았던 것은 저명도의 색이 중후한 느낌을 준다는 색채이론³⁹⁾을 지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저명도가 고명도보다 적극성이 높았던 결과는 선행연구⁴⁰⁾에서 검정색 와이셔츠가 흰색보다 능력이 높게 평가된 점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4. 남성 의복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특성

남성 의복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호도 항목을 종속변인으로, 5개 이미지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은 점퍼와 셔츠 차림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6〉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점퍼		셔츠	
	beta	t	beta	t
적극성	.299	8.48**	.280	7.43**
품위	.451	12.24**	.412	11.49**
예의성	-.052	-1.35	-.018	-.45
활동성	.053	1.46	.195	5.41*
은유성	.117	3.23**	.029	.75
R^2	$R^2 = .440$		$R^2 = .421$	
	$F = 132.88**$		$F = 121.90**$	

* $p < .05$, ** $p < .01$

〈표 6〉에서 점퍼 차림의 선호도에는 품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적극성과 은유성이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44.0%였다. 즉 남성의 점퍼 차림에는 품위 있고 적극적이며, 은유한 이미지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졌다. 셔츠 차림의 선호도에는 품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적극성과 활동성이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42.1%였다. 즉 남성들의 점퍼와 셔츠 차림은 모두

품위 있고, 적극적인 이미지가 클수록 선호도가 높아졌으나 예의있는 이미지는 선호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활동적인 이미지는 셔츠 차림의 선호도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온유한 이미지는 점퍼 차림의 선호도에만 영향을 줌으로써 의복스타일에 따라 선호 이미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이미지 평가와 구체적으로 관련지어 보면 앞의 <표 3>, <표 5>에서 볼 때 고채도 상의가 저채도 상의보다 적극성과 활동성이 높았으며, 저명도 상의가 고명도보다 적극성, 품위, 활동성이 높았고, 베이지색 바지가 남색 바지보다 품위와 온유성이 높았으므로 저명도나 고채도의 캐주얼 상의, 베이지색 면바지는 표현하려는 이미지 특성에 따라 남성 외모에 대한 호감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9>에서 볼 때 파란색 점퍼가 빨강이나 노란색 점퍼보다 온유성이 낮았으므로 특히 파란색 점퍼는 남성 외모의 선호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남성의 의복스타일과 색상, 명도, 채도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고, 남성복 이미지 특성이 선호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지역의 여대생 509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남성복의 스타일과 색채 변화에 따른 이미지 평가는 적극성, 품위, 예의성, 활동성, 온유성의 5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품위와 온유성은 상의 스타일과 색상의 2개 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어, 파란색 점퍼는 파란색 셔츠보다 품위와 온유성이 낮았다. 빨강 점퍼는 빨강 셔츠보다 품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고채도 점퍼는 저채도 점퍼보다 적극성과 활동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노란색 상의와 남색 바지를 입은 경우는 적극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푸른색 계통의 동일색상 배색은 적극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셋째, 예의성 평가는 3개 변인에 의한 의미있는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남색 바지에 저채도 점퍼를 착용한 경우는 고채도 점퍼를 착용한 경우보다 예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베이지색 바지에는 저채도 점퍼를 착용한 경우가 고채도 점퍼를 착용한 경우보다 예의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남색 바지에 저채도 파란색 상의를 착용한 경우는 빨강이나 노란색 상의를 착용한 경우보다 더 예의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넷째, 남색 바지에 노란색 점퍼를 착용한 경우는 빨강이나 파랑 점퍼를 착용한 경우보다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두운 색 바지와 밝은 색 재킷의 착용이 활동적인 느낌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노랑은 적극성과 활동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파랑은 빨강 및 노랑보다 온유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고채도가 저채도보다 적극성과 활동성이 높았으며, 셔츠가 점퍼보다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베이지색 바지는 남색 바지보다 품위와 온유성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베이지색 바지에 고명도나 저명도의 점퍼를 착용한 경우는 중명도의 점퍼보다 예의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남색 바지에 셔츠를 착용한 경우는 상의의 명도에 상관없이 예의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저명도는 고명도보다 적극성과 품위가 높게 보였고, 점퍼는 셔츠보다 예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남성들의 점퍼와 셔츠 차림의 선호도에는 품위 있고, 적극적인 이미지가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으나 예의있는 이미지는 선호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활동적인 이미지는 셔츠 차림의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온유한 이미지는 점퍼 차림의 선호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고채도 상의는 저채도보다 적극성과 활동성이 높은 인식을 주었고, 저명도 상의가 고명도보다 품위가 높았으며, 점퍼는 시각적 평가에서 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베이지색 바지는 남색 바지보다 품위와 온유성이 높았으며, 어두운 색 바지에 밝은 색 상의를 착용하는 것은 적극성과 활동성을 증가하게 하였다. 또한 의복의 선호 이미지는 의복스타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는 실험설계의 한계로 인하여 2가지 의복스타일을 채택하였고, 명도 변화는 무채색만을 사용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스타일의 의복을 포함하거나, 다양한 색의 명도 변화와 색상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이은미, 강혜원 (1994).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남성 정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2), pp. 197-210.
- 2) 최유진 (2003). *남성의 재킷, 셔츠, 넥타이 색의 변화가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6-41.
- 3) *위의 책*, p. 37.
- 4) 이향미, 김재숙 (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 대전 지역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3), pp. 312-320.
- 5) 임지영, 강경자 (2006). 컬러코디네이션 기법이 남성 착용자의 인상에서 미치는 영향(제1보):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7), pp. 1012-1024.
- 6) 이은미, 강혜원. *앞의 책*, pp. 197-210.
- 7) IRI 색채연구소 (2002). *웹컬러디자인*. 서울: 영진닷컴, p. 44.
- 8) 이은영 (2003). *복식디자인론*. 서울: 교문사, p. 123.
- 9) 남미우 (1992).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 착용자의 인상에서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7.
- 10) Molloy, J. T. (1988). *New dress for success*. New York: Warner Books Inc., 이진 역 (2005). *성공하는 남자의 옷차림*. 서울: 황금가지, p. 81.
- 11) Vrij, A. (1997). Wearing black clothes: The impact of offenders' and suspects' clothing on impression formatio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 pp. 47-53.
- 12) Radeloff, D. J. (1991). Psychological types, color attributes, and color preferences of clothing, textiles, and design stud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pp. 59-67.
- 13) Francis, S. K., & Evans, P. K. (1988). Effect of hue, value, and garment style on college recruiters' assessments of employment potential. *Perceptual and Motor Skills*, 67, pp. 87-98.
- 14) 이향미, 김재숙. *앞의 책*, pp. 312-320.
- 15) 임지영, 강경자. *앞의 책*, pp. 1012-1024.
- 16) 임지영 (1996). *넥타이 무늬와 양복과의 배색에 따른 남성복 이미지의 시각적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6-27.
- 17) 이은미, 강혜원. *앞의 책*, pp. 197-210.
- 18) 최유진. *앞의 책*, pp. 51-52.
- 19) 이은미, 강혜원. *앞의 책*, pp. 197-210.
- 20) 남미우, 강혜원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 의복착용자의 인상에서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8(3), pp. 311-326.
- 21) Bell, E. L. (1991). Adult's perception of male garment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0(1), pp. 8-12.
- 22) 이선경, 고애란 (1995). 남성 의복 착용자의 의복 유형과 얼굴의 매력성이 인상에서 미치는 영향(I): 직업 추론 및 의복인상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2), pp. 230-241.
- 23) 방희선, 고애란 (1999). 청소년의 의복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11), pp. 1-17.
- 24) 남미우, 강혜원. *앞의 책*, pp. 311-326.
- 25) 이인자 (1996). 남성의 매력성, 성공성 및 직업적 추론이 가능한 의복과 인물의 특징에 관한 연구. *복식*, 29, pp. 127-142.
- 26) 임남영, 강승희 (2003).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3), pp. 340-351.
- 27) 류지원, 김재숙 (2007). 남성착용자의 의복 격식차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과 호감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한국미용학회지*, 12(3), pp. 1330-1344.
- 28) 이은미, 강혜원. *앞의 책*, pp. 197-210.
- 29) 최유진. *앞의 책*, p. 33.
- 30) 강승희, 이명희 (2008). 재킷 스타일과 색, 셔츠 스타일이 남성의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복식*, 58(1), pp. 33-44.
- 31) 이향미, 김재숙. *앞의 책*, pp. 312-320.
- 32) 남미우, 강혜원. *앞의 책*, pp. 311-326.
- 33) 임남영, 강승희. *앞의 책*, pp. 340-351.
- 34) IRI 색채연구소. *앞의 책*, p. 44.
- 35) *위의 책*, p. 43.
- 36) 임지영, 강경자. *앞의 책*, pp. 1012-1024.
- 37) 임지영. *앞의 책*, pp. 26-27.
- 38) IRI 색채연구소 (2003). *유행색과 컬러마케팅*. 서울: 영진닷컴, p. 23.
- 39) *위의 책*, p. 27.
- 40) 최유진. *앞의 책*, pp. 51-52.